

의료서비스 비용·교육제도 개선 싸고 설전

■ 사회·교육·과학·여성분야 TV토론

저출산 대책·범죄예방 해법 시각차 뚜렷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교육제도 개선방향, 범죄예방과 사회 안전 대책,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기초연설

▲문재인=다음 정부에서의 공동과제는 새 정치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민생을 살리자는 데는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새누리당도 동의한다. 민생을 살리는 것은 일자리와 복지국가, 여기에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개선, 경제위기 극복이다. 이 과제들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겠나. 이 점만 보고 판단해달라. 정당·지역, 내 편 내 편이 아닌 그대로 판단해달라. 또 지금 제시하는 후보들의 정책도,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성도 함께 살펴달라.

5년 동안 후회하지 않을 투표를 해달라. 투표를 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이 걸린 대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정세가 어렵다. 내년에는 국제 경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서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번 대선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실패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준비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선택해 달라.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시대교체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을 하고, 중산층 복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모두가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가비전 제시와 성공적 실현 방안

▲박근혜=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함께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국정운영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최고 가치를 국민의 행복으로 삼겠다. 모든 국민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특히 중산층 재건을 최고의 목표로 삼겠다.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3대 핵심 국정 과제로 삼겠다. 경제적

주화를 통해 확실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골목시장 지키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겠다.

▲문재인=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제약적 대통령 제도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약적 대통령이 문제인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국가를 멋대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인사개입, 자기 사람 챙기기에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불통'까지 더해지면 나라 전체가 잘못될 수 있다.

평생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통합의 정치도 불가능하다.

새 정치는 소통과 동행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저출산·고령화 대비책과 예산 확보방안

▲문재인=출산 휴가를 받는 게 아니라 출산 때문에 사표를 쓴다. 제 딸도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다. 얼마가 낳지만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반값 무상 보육 실현해야 한다. 고령화도 대비해야 한다. 86세 퇴신 어머니가 있다. 기초노령연금 2배로 늘리겠다.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실현하겠다. 장기보형 대상도 늘리겠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39조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조달 계획은 이미 밝혔다. 부자 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만든다는 것이 중심이다.

▲박근혜=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아이 양육비 적극 지원, 0~5세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둘째,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아빠 육아 출산휴가제도,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까지의 무상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대학 등록금도 낮추겠다.

노령과 관련 노인 일자리 확대도 관건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노후 소득 보장하고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100% 건강보험 적용하도록 하겠다. 의료서비스 체제 강화, 공약 실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하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마지막 대선 TV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토론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합시다”

광주·전남 곳곳 릴레이 기자회견·캠페인

제18대 대선을 사활을 앞두고 광주·전남 곳곳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과 단체는 자발적으로 투표 참여를 약속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잇따라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정당·시민단체가 참여한 '정권교체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연대'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광주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투표 참여 캠페인을 연다. 광주·전남 6월항쟁 기념사업회도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학장단도 17일 오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광주 원로회의와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16일 오후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시·도민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집권은 낡은 기득권체제의 연장이며, 과거로의 회귀이고, 이명박 정부에 이은 또 하나의 재앙"이라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의 꿈을 위해 100% 투표를 보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투표가 꼭 100% 투표 참여하기 ▲하루 3번, 3명에게 연락해 3표 확보하는 333운동 동참하기 ▲전화·SNS·문자메시지로 투표 참여 독려하기 등을 제안했다.

이날 전남대 인근에서는 대학생 투표 참여 거리 퍼포먼스와 거리행진이 열렸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투표참여 독려 운동인 '투표하고 합인받자' 캠페인도 지역 상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투표합인마켓' 1000호점까지 탄생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7일 조선대 기숙사 내 커피숍에

서 '투표합인마켓' 1000호점 지정 행사를 갖는다.

현수막을 내걸며 자발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도로변 등에 '우리집은 100%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100세 할머니와 함께 우리 가족 100% 투표' '5년 전에 투표하지 않았습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하 26년, 남영동 1985 보셨나요? 투표로 서명을 남겨주세요'라는 특색 있는 문구를 사용해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대 교수들도 교내 기숙사 입구에 '12월19일! 청년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대학생들의 투표를 촉구했다.

현재 선관위와 정당 및 시·구의원들에 이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내건 투표참여 현수막은 광주에만 대략 1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수·진보 진검승부

총결집에 예측불허 초박빙 판세

차, 보수대연합 강화
문, 국민연대로 맞서
뒤로 없는 일전 불가피

갑 등 동교동계 인사들까지 끌어 들어 대연합의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문 후보는 심상정·노회찬·조국·황석영·공지영 등이 함께하는 국민연대로 대응하고 있다. 집권 후 지역 정파 정당을 넘어선 초당파적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같이 보수 대 진보의 대결집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16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보수·진보 간 세 대결 구도는 더욱 강화됐다.

우선 이 후보 사퇴가 여당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반대로 중복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보수층 결집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쪽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 같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고 더 나아가 정치지형 대변화의 방향과 폭도 180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측 간의 총결집령을 내린 상태다.

18대 대선이 종반점으로 접어들수록 보수·진보 양 진영의 세 대결이 가속화되면서 대연합 전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열띤 유세 지원과 각종 공방으로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양측 지지층이 급속히 결집하는 양상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초반 문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안팎의 우세를 보였으나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가 문 후보 구원 등판에 나서면서 판세는 다시 예측불허 국면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을 중심으로 한 범보수진영과 범진보진영은 한 판 세 대결을 위한 총결집령을 내린 상태다.

박 후보는 이회창·이인제·김영삼·김종필 등이 함께하는 보수대연합을 구축했다. 한광욱·한화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끝까지 한방

JNJ TOUR 정남진투어 문의전화 1577-7616

여행을 통한 아름다운 만남..

정남진 투어에서는 **제주도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남진 투어 **공짜 이벤트!!!** 선착순 1일 5명 공짜!

오렌지호 장흥↔제주

2012년 11월 19일 ~ 12월 20일까지
주중항차 *금토장흥/일성산출항 항차는 제외

선착순 3,00명 (사전예매자에 한함) 하루에 5명씩 적용!!
일반실편도 ₩9,000 적용 (항만세 별도)

제주 한라산 산행 **99,000**

제주 1박 2일투어 **119,000**

제주 2박3일 투어 **139,000**

정남진투어 이용시 20% 항시 할인~!!
선박최고 40%/노력항까지 버스임대 50% 할인~!!!

차량무료 선적 3명 예약시 1600cc 미만
차량 무료 이벤트 중복은 불가

NAVER 정남진투어 검색하세요!